

北매체 “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 방문…북러관계 새로운 전성기”

크네비치 비행장·태평양함대 방문해 러시아 침단무기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조려(북리)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역사에 친선 단결과 협조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블라디보스토크시는 열렬하고도 뜨거운 환영 분위기에 훈싸여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에는 리병철 노동당 비서와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북한군 지도부가 동행했다.

러시아 측에서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지도부가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

김 위원장은 크네비치 군 비행장으로 이동해 각종 전략폭격기와 다목적 전투기를 비롯해 러시아 공군의 현대적인 군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비행기를 시찰했다.

그는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서 군용 항공기의 전술적, 기술적 제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항공무장장비를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략핵잠수함과 수상함, 항공대 등 최신 장비를 갖춘 러시아 태평양함대 기지도 방문했다.

휘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문록에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이라고 적었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의 태평양함대 방문을 환영하는 오찬 자리에서 두 나라 국방 당국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심화 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오찬 후 쇼이구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가의 자주적 권리와 발전, 이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고 있는 러시아 무력의 발전상과 현대성, 영웅성(영특하고 용감함)을 높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한 견해들을 공유하고 북러 양국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실무적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백경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尹대통령, 어제 퇴임 장관들과 만찬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장관들, 전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만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관저에서 퇴임 예정인 김현숙 여성가족·박보균 문화체육관광·이종섭 국방·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이들의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하는 등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 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 5부 요인과 만찬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만찬 계획이 취소됐고, 이에 윤 대통령이 전현직 장관들과 김 전 안보실장을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 곽도훈 기자

대통령실, ‘총리 해임건의’ 野결의에

“막장투쟁 피해자는 국민”

대통령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데 대해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

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철경이다. 우리 경제의 동력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 결국 국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 양승호 기자

18일부터 추석 특별방법 공항·기차역에 경찰특공대 투입



경찰특공대, 제주공항 순찰 활동

경찰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112신고 대응을 총괄하는 경찰청 상황관리관을 기준 총경급에 서 경무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 등에 경찰

특공대와 지역경찰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귀금속점과 환전소, 편의점 등 범죄 취약 영업소에도 범죄예방진단팀 소속 경찰을 보내 취약요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 가정 내 폭력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점검도 늘린다.

범죄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운행과 함께 교통량 분산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 강현웅 기자



이재명 단식하던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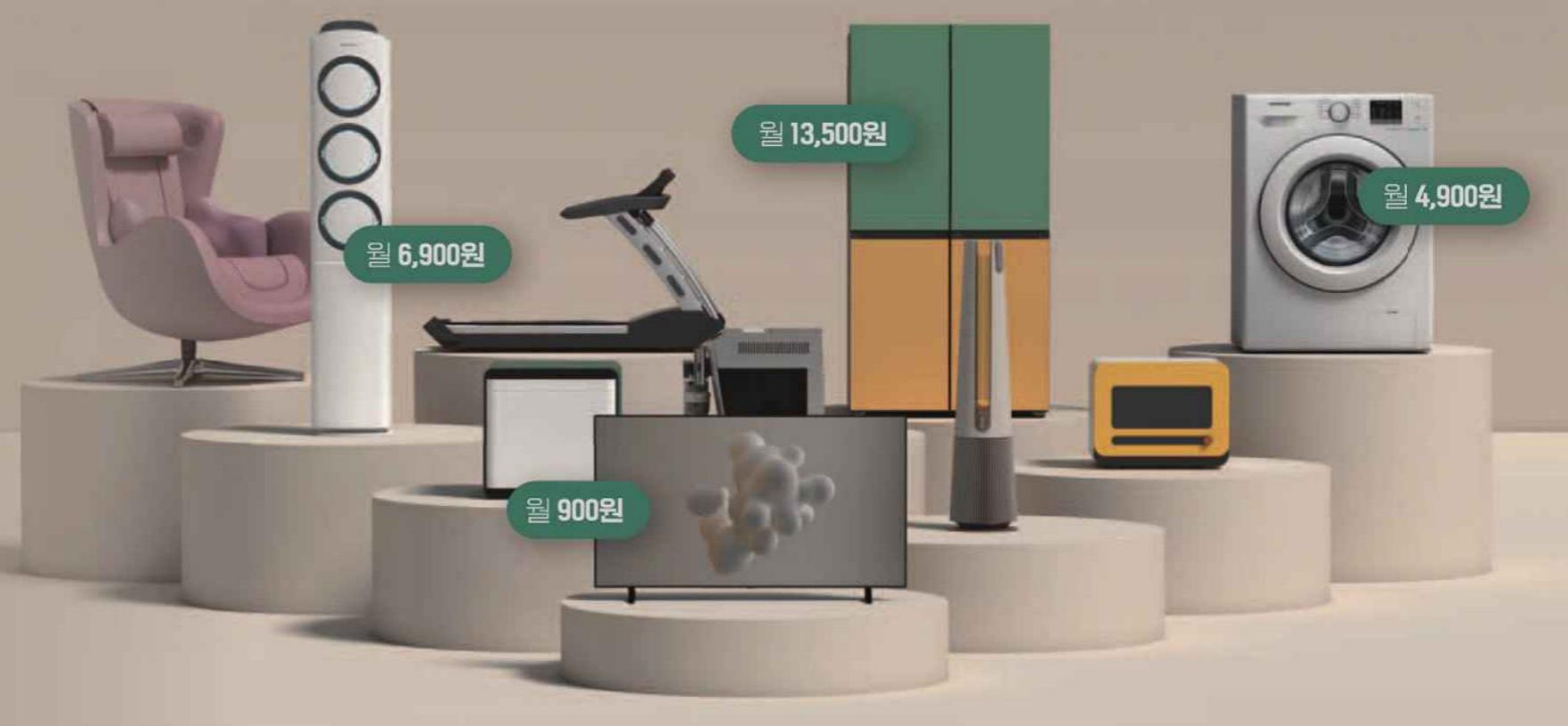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

/ 송진영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문항 폐지…올해 평가 유예

교육부, 부총리-현장교사 간담회…“담임·보직교사 수당 대폭 인상 추진”

교육부가 그간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언어폭력으로 논란이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평가는 유예한다. 또 오랫동안 동결됐던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들과 만나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함께 평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교육 활동 개선,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교원의 학습·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서술식 문항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 하는 이주호 부총리

하지만 익명으로 시행하는 점을 악용해 학생·학부모가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면서 교사에게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잦아 교원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세종지역의 고3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심각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학교 측과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작성자가 드러나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후 유탈 등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원침해에 시달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교육현장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교원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윤희 금성고 교사는 “교원의 역량 개

발을 돋기 위해 현재의 교원평가는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자기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는 현장 교원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고려해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부담 때문에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 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또한 현장 교사를 교육부 장관 직속 보좌역으로 위촉하고, 주제별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현장 교사와 정례적인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장수경 기자



16일 오전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 현장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일가족 5명 사망사건 추가 현장감식 저항흔적·독극물 확인

전남 영암의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를테면 현장감식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서는 16일 오전 10분부터 영암군 영암읍 사건 현장에 과학수사요원과 형사 등을 투입, 2차 54분에 주택 창문의 핏자국을 발견한 이웃 주민의 112신고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야간 시간대까지 이어진 1차 현장감식에서 놓쳤을지 묘를 단서의 유무를 확인하고, 혈흔 정밀 분석을 위해 추가 현장감식을 한다고 설명했다.

2차 현장감식은 조사에 불필요한 가재 도구 일부를 집 밖으로 옮겨두는 작업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사건이 발생한 김모(59) 씨 주택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에 통제선을 설치, 접근하는 사람과 차량을 검색하고 통제했다.

단층짜리 농촌 주택인 사건 현장에서 지금까지 외부인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편지나 쪽지 등의 형태로 남겨진 가족의 유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독극물 사용 여부, 숨진 가족들

의 시신이나 집 안에서의 저항 흔적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 일가의 사망 시각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도 이날 오전 10시에 이뤄졌다. 일가족 5명의 사망은 전날 오후 3시 54분에 주택 창문의 핏자국을 발견한 이웃 주민의 112신고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소방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집 안에서 김씨, 김씨의 아내(56), 김씨 부부의 20대 아들 3명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가족의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흉기 1점이 수거됐다. 아들 3명은 안방에서, 김씨 부부는 부엌이 팔린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3살 터울인 김씨의 아들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달 4일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였다.

그는 이를 전 경찰 출석 요구에 날짜를 미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했다.

/ 원현종 기자

김여사 “저도 힘든 경험”

자살 시도 청소년들 만나 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자살 예방 관련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구묘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괜찮아 걱정’

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 시도 후 회복자와 가족, 자살 예방 후원자,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생명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 같

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비난받은 일을 껴내며 “심지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듣는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며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송유영 기자

법무부 “한동훈, 특활비 거짓해명” 野주장 사실무근

“지난 정부 검찰에서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 있었다고 설명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 검찰청 중 일부 검찰청에 2017년 1~8월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지적에 “2017년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날 2017년 1~8월 특활비 자료가 공개된 만큼 한 장관의 이 국회 답변은 거짓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장관이 없다고 했던 자료들은 존재했다”며 “그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한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특활비 관련 자료를 5년 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이전까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개선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기준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박현우 기자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감사원, 18일부터 ‘잼버리’ 감사

국무조정실도 대상

지난달 파행 위기를 겪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유치·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감사원이 오는 18일부터 관계기관에서 본격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를 다수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해당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오는 18일부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에 감사 공간을 꾸리고 본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잼버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실지감사 대상이다. 이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 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

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해 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한다. 다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럿이 2017년 대회 유치 이후부터 장기간 관여해 온 만큼 감사원 내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이 파견될 전망이다.

/ 문호성 기자

IMO 면담·항의집회…野, 美·유럽서 오염수 문제 국제여론전

영언던서 IMO 사무총장에 이재명 서한 전달…美뉴욕선 日영사관 앞 집회 후 거리행진



16일 미국 뉴욕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인 이용선,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야당 정치인, 국내 환경·시민단체 활동가, 현지 교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주말 사이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를 방문, 임기택 사무총장 등과 약 1시간40분간 면담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원 등은 면담 후 연합뉴스와 만나 “면담에서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다음 달 IMO 런던협약·런던 의정서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후쿠시마 방류가

장기간 이어지며 생기는 문제에 관해 한 국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전했다”고 했다.

이들은 “바다를 지키는 런던협약·런던 의정서 정신에 따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미래 세대와 해양생태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허용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성 폐수 투기는 런던 의정서 법률 체계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협약·런던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우 의원 등은 “IMO 사무국 측은 폭넓은 해양 보호 차원에서 지속 논의해야 한다는 데 같은 의견이었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며 “당사국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엔 대한민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당사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IMO 사무국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는 답변을 내놨다.

우 의원 등은 “총회 6주 전까지 서면 의견을 내야 사전에 회람이 되고 의견이 효과적으로 공유되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사국 의견은 총회에서 구두로 밝힐 수 있다.

몇시간 뒤인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한국 방문단과 현지 교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가 열렸다.

방문단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인 이용선,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야당 정치인, 국내 환경·시민단체 공동대책위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라고 영어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뉴욕 시민들에게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맨해튼 미드타운 소재 유엔본부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소셜 ‘꽃들에게 희망’의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트리니 폴리스(92)가 참석해 방문단의 호소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 방문단은 17일에는 맨해튼 유엔 본부 인근에서 열리는 ‘세계시민 기후행진’에 참여한다. 유럽 방문단은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조사관 면담 일정을 소화한다.

/ 김성윤 기자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주 만에 국회 앞으로 등지고 앉아 항의한 3만 교사

토요일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다시 국회의사당 앞을 빼곡히 채웠다. 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건너뛰어 2주 만이다.

주최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교사들은 겹은 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다.

사회자는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현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운을 뗐다.

사회자는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 이창준 기자

김기현 “조작뉴스 원천 퇴출해야…美에선 1조원 넘게 배상”

“허무맹랑 허위사실 전파가 ‘표현의 자유’라는 건 난센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조작된 뉴스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조작·허위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총공세를 펼치는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외치는 세력



자유라면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우기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허위사실에 기해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는 바로 이와 같은 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자신의 표현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책임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있고, 누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형민 기자

‘이재명 단식’ 출구 못찾고 장기화…영장 임박에 체포안 뇌관도

李측 “단식 계속 의지 확고”…19일 상경 文, 李 만나 ‘중단 설득’ 관측도

국정 쇄신 등을 촉구하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이 2주를 훌쩍 넘겼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당 소속 의원 및 재야 원로·시민단체 인사들의 중단 촉구에도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갈 때가 단식 종료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원에서도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촉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단식 18일째인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단식에 들어갈 때부터 ‘무기한’이라고 강조했고, 단식을 풀 만한 명분들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단식을 접을 수도, 접어서도 안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 역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열흘 넘게 단식을 조종하던 여당 대표가 이제 와서 저러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 지도부로선 단식 출구 전략 마련은 물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 대표 단식으로 그나마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 표결 향방을 계기로 재점화할 수 있어서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기는 했지만, 당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한동안 분란이 있 바 있다.

민주당은 겹침이 이번 주 초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체포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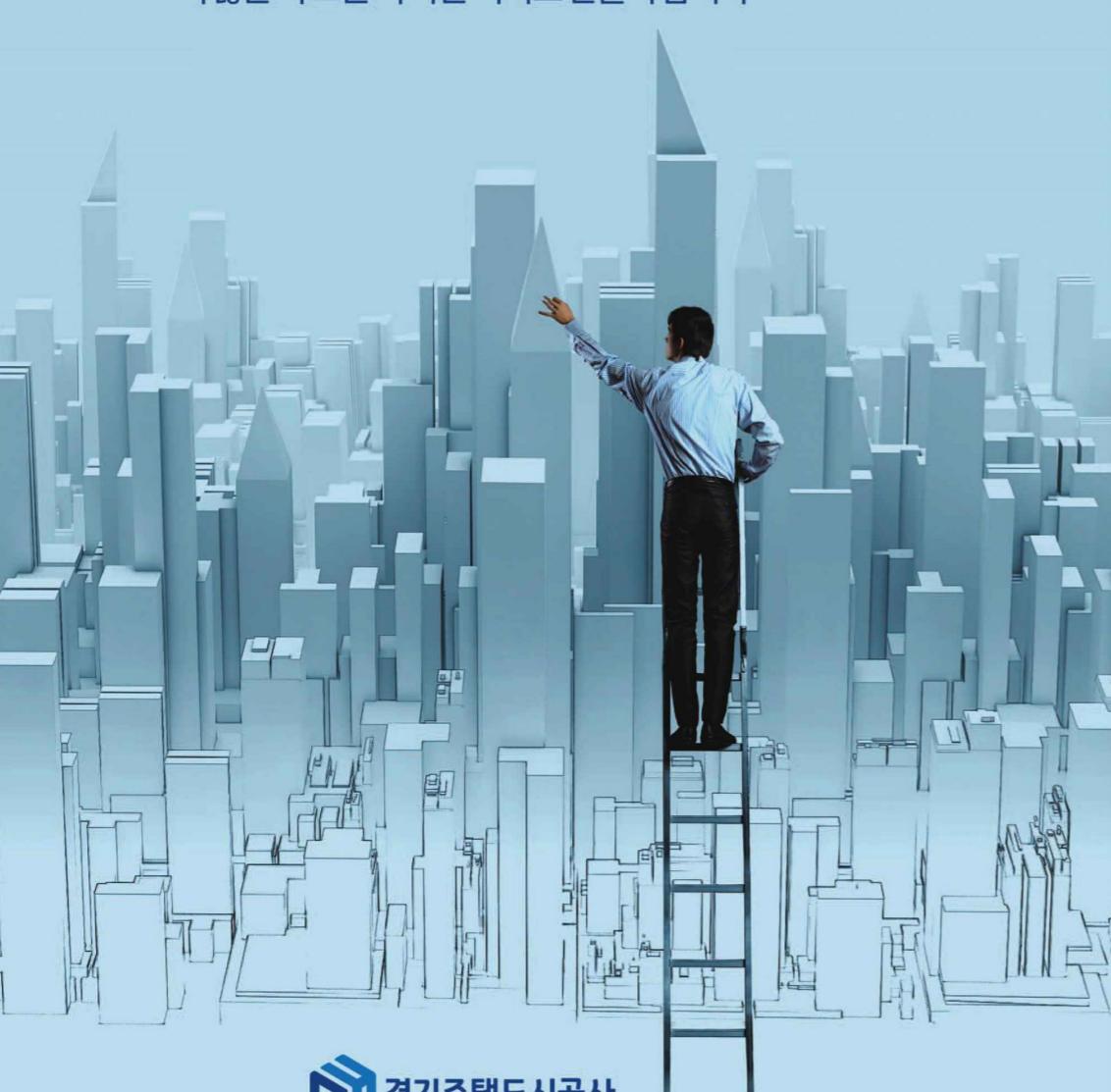
지도부 내에서는 앞서 이 대표가 ‘불체 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당내 ‘부결 여론’이 거세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일한다.

실제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본회의 표결 거부’(민형배 의원)나 ‘체포동의안 부결’(서은숙 최고위원) 등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 손현수 기자

내일을 만드는 기회 기회를 만드는 GH

경기도민 모두의 희망찬 내일!
 기회파트너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담동 주식부자’ 혐의 이번엔 코인사기 혐의 구속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뒤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씨가 이번에는 코인 사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씨와 동생 이문(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띠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 형제의 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한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 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주식 사기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

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옮기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 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상장 신청 때도 동업자 이씨 형제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됐다.

/ 이철용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산하나병원을 찾아 목욕탕 화재 부상 경찰관을 위로하고 있다.

경찰청장 “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경찰관 치료비 전액 지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부산 목욕탕 화재 중 폭발 사고로 다친 경찰관 등을 찾아 치료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윤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부산 사하구 화상 전문병원인 하나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 3명, 소방관 1명, 구청 공무원 1명을 위문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윤 청장은 특히 화재 사고 수습 중 폭발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경찰관의 치료비, 간병비, 성형수술비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공무집행 중 다친 공

무원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일 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존 법과 제도적 제약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부산 사하구 화상 전문병원인 하나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 3명, 소방관 1명, 구청 공무원 1명을 위문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호비 지급 기준(화상 부위 비율 35% 이상)에 맞지 않아 하루 15만원인 간병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 송원기 기자

‘탈북 청소년 성추행’ 유명 목사 구속기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목사 천모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이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쉐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황수철 기자

‘밀가루·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판매금 편취한 20대



인터넷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찍어 전송해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속여 돈만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3월 25일 오후 1시 1분께 원주시에서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폐루서 들여온 오리지널 코카인입니다’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총 119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8월 19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9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전송해 돈만 받는 수법으로 2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마약 판매에 그치지 않고 2019년 9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 관련 국내 전과는 없지만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 여러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며 “공범의 혐의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 권정석 기자

도림동 환전소서 흉기로 협박해 179만원 훔친 30대 체포



의 20대 여성 A씨도 체포됐다.

‘남녀 둘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환전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다가 범행

약 18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의 한 호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100만원을 회수했다. 이들은 카드값 등에 79만원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보던 중국 국적

/ 박정민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리비아, “시신 탓 전염병 돈다” 대홍수 도시 사실상 봉쇄

최소 1만명 숨진 데르나에 민간인 출입금지령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리비아가 시신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우려해 피해 도시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 당국은 열대성 폭풍으로 땅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홍수로 최소 1만 명이 숨진 동북부 항구도시 데르나 대부분 지역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했다.

이는 도시 곳곳에 방치된 시신이나 고인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긴급 구조 요원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제 데르나 대부분 지역에는 수색 구조팀만 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응급 서비스 국장 살렘 알 페르자니는 밝혔다.

이미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데르나를 떠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데르나에서 수색 구호 작업 나선 인도주의단체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리비

아가 시신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우려해 피해 도시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했다.

이는 도시 곳곳에 방치된 시신이나 고인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긴급 구조 요원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제 데르나 대부분 지역에는 수색 구조팀만 진입할 수 있다고 현지 응급 서비스 국장 살렘 알 페르자니는 밝혔다.

ADVERTISEMENT

이미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데르나를 떠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천300명이 숨지고 추가로 1

만100명이 실종됐다는 리비아 적신월사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전해졌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13

일 알자자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

가 1만8천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

다고도 추산했다.

데르나 봉쇄 계획은 대홍수로 지금까

지 최소 1만1

사회적가치 축제 SOVAC…최태원 “베트남부스서 곤충과자도 먹어”

소셜벤처 활성화 모색…46개 공공·민간기관 등 2천명 참여



사회적가치 민간축제 'SOVAC 2023' 개막

사회적 가치(SV) 관련 국내 최대 민간 축제인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23'이 15일 서울 광진구 위커힐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지난 2019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SOVAC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투자유치, 고객 확보, 판로 개척의 고민을 해결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온 국내 최대 SV 연결 플랫폼이다.

올해 5회째를 맞은 행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46개 공공·민간기관과 이해관계자 2천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주관

참여자 확대가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46개 공공·민간기관과 이해관계자 2천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SOVAC 2023에서는 ▲기후위기와 신사업 기회(D3쥬빌리파트너스)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상품마켓도 열었다. 71개 상품이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판매되며 온라인 11번가 'SOVAC 마켓'에서도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한 사회적 가치 성과비례보상 세션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액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SOVAC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운영해온 IR 룸을 통해 54개 기업을 소개했고, 이 중 코끼리공장, 넷스파, 라잇루트 등 20여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2021년 7월 11번가에 론칭한 'SOVAC 마켓'

은 사회적기업 상품 누적 매출 200억원, 구매 고객 수 5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사회적 가치 성과비례보상 세션을 주관한 사회적가치연구원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16년 이후 368개 기업에 603억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오후 5시 30분부터는 SOVAC 사무

국과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공동 주최하는 'SV 리더스 서밋'이 처음으로 열렸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전시관을 찾아 부스를 둘러본 뒤 “베트남 부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벌레(곤충과자)도 먹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베트남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SK스타트업 펠로우십 베트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어 SOVAC의 성과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오프라인 행사) 하지 못했다”면서 “연륜과 데이터가 쌓이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SOVAC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온라인 회원 16만명,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정부·공공기관·기업 등 파트너사 300개사를 두고 있다.

SOVAC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운영해온 IR 룸을 통해 54개 기업을 소개했고, 이 중 코끼리공장, 넷스파, 라잇루트 등 20여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2021년 7월 11번가에 론칭한 'SOVAC 마켓'

은 사회적기업 상품 누적 매출 200억원, 구매 고객 수 5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사회적 가치 성과비례보상 세션을 주관한 사회적가치연구원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16년 이후 368개 기업에 603억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 송원기 기자



현대차, 외국인 유학생 채용설명회 ‘글로벌 팀 현대 토크’ 개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현지화 전략의 동력이 되어 줄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성수동 복합문화 공간에서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글로벌 팀 현대 토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지화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고 신입사원 상시 채용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행사에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오세아니아 9개국, 유럽 8개국, 아메리카 6개국 등 총 40개국의 유학

생들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본사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직자들이 자신의 커리어 개발 과정을 공유하는 ‘외국인 현직자와의 멘토링 시간’도 진행됐다.

멘토로 참여한 멕시코 국적의 마리오

코로나 책임매니저(상용해외사업추진2팀)는 ““한국 생활과 본사에서의 근무 경험 등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행사를 통해 현대차와 채용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다’, ‘현대차 지원 의지가 강화됐다’는 응답률도 각각 90%를 상회했다.

현대차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끌어나갈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세안 국적 유학생들에게 인턴 실습 및 채용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아세안 인턴십’(ASEAN H-Experience), 해외 인재를 국내로 초청해 현대차의 비전을 알리는 ‘현대 비전 컨퍼런스’ 등도 그 일환이다.

/ 김철민 기자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7

관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로 세금 900억원 돌려줘

양기대 “관세행정 전반 점검하고 효과적 소송 대응 체계 갖춰야”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천60억원으

로 크게 늘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8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홍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

양 의원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달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남호영 기자

삼성전자,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전용 ‘더 월’ 유럽 출시

네덜란드 ‘IBC 2023’서 선보여…스크린 관리 가능 전용 솔루션도 제공



삼성전자가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전용 디스플레이인 '더 월' 포 버추얼 프로덕션'을 유럽에 출시, 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 전문 전시회 'IBC 2023'에 참가해 더 월 포 버추얼 프로덕션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더 월 포 버추얼 프로덕션은 P1.68(픽셀 간 거리가 1.68mm인 제품)과 P2.1로 출시된다. 스튜디오 전체를 평면 또는 최대 5천800R(반지름) 5천800mm인 원이 흔 정도) 곡률의 타원형으로 감싸는 형태로 제작 가능해 촬영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표면에 특수 몰딩 기술을 적용, 먼지 등

외부 오염 요인이 많은 스튜디오 환경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천장에 연결하는 행잉 방식과 레고 블록처럼 쌓아서 설치하는 스탠킹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스튜디오 환경에서 실시간 스크린 화질 설정과 발광다이오드(LED) 고장 유무 확인이 가능한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솔루션(VPM)도 함께 제공한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방송과 영상 제작 환경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곽찬민 기자

기후동행카드 화두 던진 오세훈 “서울 서둘러야 경기도 혜택”

“경기 결정해야” 압박…“3자협의 시작”…野 ‘3만원 청년패스’엔 “포퓰리즘”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서울시가 서둘러야 경기도민도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YTN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협상하고 결정해야 할 게 산 넘어 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판적 입장인 경기도를 향해 “경기도가 문제”, “경기도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압박하면서도 점점을 찾기 위한 경기도, 인천과의 3자 협의체가 가능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후교통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향후 리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다. 내년 1~5월 시범사업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

주요 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당장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준공영제다. 인천은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 체제여서 참여가 어렵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

오 시장은 “경기도는 지금 준공영제가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험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

거의 90%가 안 되고 있다”며 2천개 노선의 버스가 1만대 정도에 이르는 데다 각 기초지자체와도 협의하고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지역별 주행거리에 따른 비용 차등 문제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서울시가 이렇게 치고 나가서 먼저 시행하고, 그러면 여론 압박이 좀 될 것”이라며 “그런 걸 지켜보면서 경기도에서도 서둘러 협상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게 오히려 경기도민들께 빨리 이 서비스를 드리는 길이 아닐까 판단했

다”고 말했다.

또 “진심으로 빨리 경기도 내의 의견이 통일되고 비용 분담 문제가 지자체 간, 광역과 기초 간 협상이 빨리 진행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100만명 정도의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후동행카드 대신 지하철·버스비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굉장한 적자”라며 웃은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요금을 올리되 이런 시도를 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이 대중교통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다. 그것으로 별충하겠다는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가 나와도 시와 교통공사, 버스회사의 적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 등 교통비 절감 정책 대안으로 월 3만원대 ‘청년패스’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액이 문제라면서 “소비자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또 가족 할인 등 각종 할인도 검토했다면서 정년만 따로 혜택을 주자는 방안에 대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발표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을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의논하고 그런 제안을 한 건지”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시와 운수회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6만5천원을 도출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 송원기 기자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캐리커처 그리는 모습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본격 개막

“마음을 여는 만화”

국내 최대 만화축제인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가 15일 막을 올렸다.

이날 오후 경기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식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코스튬 플레이어와 국내외 만화 축제 관계자, 만화가, 독자 등이 뒤섞여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인 최용석의 판소리 공연으로 문을 연 뒤 가수 알리의 웹툰 ‘정년이’ OST 라이브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장에는 원로 만화가부터 20대 신인 만화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만화계 종사자들이 뒤섞여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조관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은 “궂은 날씨에도 먼 길을 찾아와준 80·90대 원로 작가님들과 동료, 후배들의 지원 덕에 축제가 풍성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올해 축제는 만화를 매개로 한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부천만화대상 수상작에서도 이 같은 주제의식이 읽힌다.

대상을 받은 ‘도박중독자의 가족’, 신인 만화상 ‘요나단의 목소리’, 해외작품상 ‘침묵공장’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박중독자 주변인, 성소수자, 아동성폭력 피해자 등 그간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이들을 조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요나단의 목소리’를 그린 정해나 작가는 이날 시상식에서 “혐오의 시대를 살면서 성소수자와 약자를 잊지 않고 독자의 마음을 여는 만화 계속 그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일반 시민과 독자들이 즐기기 좋은 행사들도 많이 마련됐다.

17일에는 D.P의 김보통 작가, ‘정년이’의 나쁜 작가의 사인회, 부천만화대상 수상자 대담과 함께 ‘영동이탐정: 수풀레섬의 비밀’ 무료 상영회도 열린다. 세계웹툰 포럼을 통해 생생형 인공지능(AI)과 만화의 미래를 짚치는 시간도 가진다.

/ 이은정 기자

“매운맛 보러오세요”…서울광장서 영양 고추페스티벌



경북 영양군은 오는 18~20일 서울광장을에서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영양고추는 언제나 끓다!’를 슬로건으로

로 한 올해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중점으로 열린다.

엄격하게 선정한 50여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업체가 영양고추와 다양한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주요 판매 품목인 건고추(화건)와 고춧가루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해 구매한 물품을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배달해주는 배달도우미와 택배서비스 부스도 운영한다.

이 밖에 한글로 기록한 최초의 음식조리서인 ‘음식디미방’ 등의 홍보전시관도 운영하고 영양고추테마동산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영양의 특색을 살린 가을 농촌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 임성진 기자

용인시, 시정 참여 주민에게 내년부터 ‘시티포인트’ 지급 조례 제정 완료…민간 마일리지→지역화폐 전환 사용

경기 용인시가 각종 민간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바꿔쓸 수 있게 개발한 ‘시티포인트’를 내년부터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지역 환경정비, 재난 복구, 각종 설명회, 행사 등 공익성이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시티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 대상은 용인시민은 물론 관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시정에 참여한 주민 모두이다.

다만 지급된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해왔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인센티브 지급에 근거로 수월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대낮 성폭행 사건 등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는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내년도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한다.

원주시 가로등형 블랙박스 보안등 136개 설치 완료…내년 300개

강원 원주시는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 136개를 설치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내년도 본 예산에 300대 물량의 사업비를 전부 반영해 총 436대를 조기 설치하기로 했다.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설치해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 역할도 한다.

CCTV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 관리도 수월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대낮 성폭행 사건 등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는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내년도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한다.

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사를 작성하면 된다.

/ 이동준 기자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협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신제 대응하는 반도체 7대 연합 ECO Alliance

We Do Technology | SK hynix

원주시 가로등형 블랙박스 보안등

136개 설치 완료…내년 300개

강원 원주시는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 136개를 설치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내년도 본 예산에 300대 물량의 사업비를 전부 반영해 총 436대를 조기 설치하기로 했다.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설치해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 역할도 한다.

CCTV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



관리도 수월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대낮 성폭행 사건 등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는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내년도 가로등형 방법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한다.

/ 이동준 기자

AG 축구대표팀 황선홍 감독 “이강인 경기 투입 시기, 조절 필요”

“정상 훈련 소화·20일 PSG 경기 출전할 듯…포지션은 본인과 소통해 결정”

황제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남자 축구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은 합류 시기가 결정된 ‘에이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하 PSG)의 경기 투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감독은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회 장소인 중국 항저우로 떠나기 전에 취재진을 만나 “이강인이 현지에 도착하면 21일 저녁이 될 것”이라며 “컨디션 등을 잘 검토해 투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표팀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강인은 지난달 하순부터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겪어 아시안게임 합류 시기가 불투명했다.

대표팀에선 당연히 이강인이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합류해 적응하기 원했다. 그러나 소속팀에서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PSG 측에서 언제 이강인을 보내줄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와 PSG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강인이 현지시간 19일(한국시간 20일 오전 4시) 소속팀의 유럽



인터뷰하는 황선홍 감독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도르트문트(독일)와의 홈 경기를 마치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14일 밤 결정됐다.

황 감독은 “이강인이 부상에서 회복했다고 하며, 정상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새벽(리그) 경기엔 위험성이 있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미팅을 통해 출전하

지 않았고, 도르트문트전에 참여할 듯하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E조에 속한 한국은 19일 쿠웨이트, 21일 태국, 24일 바레인과 중국 저장성 진화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차례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2차전까지 이강인을 활용할 수 없고, 이르면 3차전에 가능하다.

황 감독은 “20일 UCL 경기를 지켜보고 이강인의 몸 상태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투입 시기는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류한 뒤 어느 시점에 이강인의 컨디션이 최고조가 될지 계산해서 투입해야 한다. 빨리 쓰기보단 그런 측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인의 포지션에 대해선 “본인과 소통을 우선 해야 한다”며 “오래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90분을 소화할 체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포지션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e스포츠’ 국가대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선수단

정아람,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87kg급

합계 3위…인상은 2위



메달 2개(용상, 합계)를 손에 넣었다. 정아람은 합계 1위를 노리고 용상 3차 시기에서 139kg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바벨을 놓쳤다.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 시상대에 선 정아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정아람이 출전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87kg급 경기는 10월 6일에 열린다.

정아람은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세계역도선수권 여자 87kg급 경기에서 인상 107kg, 용상 134kg, 합계 241kg을 들었다.

인상에서 2위에 오른 정아람은 용상에서는 3위를 했고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합계 기록으로 만 메달을 주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세계선수권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 3개 부문에 모두 메달이 걸렸다.

정아람은 이날 은메달 1개(인상)와 동

류현진, 18일 보스턴 상대로 시즌 4승에 4번째 도전



원손 투수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가을 야구’ 문턱에서 최대 위기에 놓인 팀을 구하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구단은 18일 오전 2시 30분(한국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의 홈경기 선발 투수로 류현진을 16일 예고했다.

류현진은 시즌 9번째 등판에서 4승 수확에 4번째로 도전한다.

토론토는 12~15일 안방에서 텍사

스 레인저스에 4경기를 내리 헌납해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4위로 밀렸다. 토론토를 밟고 일어서 텍사는 와일드카드 2위로 악진하고 동시에 리그 서부지구 1위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0.5 경기 차로 끌어 포스트 시즌 출전의 유리한 고

지를 점했다.

탬파베이 레이스가 와일드카드 1위를 공고히 지키는 가운데 텍사는 서부지구의 시애를 매리너스가 기세를 살려 2, 3위를 달리는 형국이라 토론토는 포스트시즌 출전이 어려워진 보스턴을 상대로 분위기를 돌리지 못하면 곤란해진다.

포스트시즌에는 각 리그에서 지구 우승 3개 팀과 세 팀을 제외하고 승률이 높은 와일드카드 1~3위가 출전한다.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3위 시애를

에 1.5경기 뒤진다. / 신송현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입장권 가장 비싼 종목은 e스포츠

황선우·우상혁·안세영

항저우 빛낼 월드 스타에 포함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입장권 가격이 가장 비싼 종목은 e스포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e스포츠 입장권 구하기 가장 어렵고, 가격도 가장 비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e스포츠는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피파 온라인4, 스트리트 파이터 V 등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게임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입장권을 복권 추첨 방식으로 판매하는 종목은 e스포츠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입장권 판매 사이트를 보면 대부분 종목의 입장권 가격이 50위안이나 100위안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e스포츠만 400위안(약 7만3천원)에서 시작할 정도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있다.

e스포츠를 제외하면 골프 300위안, 리듬체조 200위안 정도로 비싸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100위안 이하에서 가격이 시작된다.

물론 종목별 입장권 가격은 경기장 수용 규모나 경기장 위치, 경기 일정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종목의 인기도 연결 짓기는 어렵지만 신생 종목인 e스포츠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회 개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목별로 출전하는 스타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터넷 홈페이지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오는 유명 선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회 ‘월드 스타’들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수영 황선우, 육상 우상혁, 배드민턴 안세영 등 한국 선수도 세 명 이름을 올렸다.

우상혁과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디루 무타즈 애사 바르십(카타르)과 세계선수권 남녀 창던지기 금메달리스트인 니라즈 초프라(인도), 기타구치 하루카(일본)도 거론됐다.

또 백혈병을 이겨낸 수영 선수 이케에리카(일본), 여자 기계체조 48세 베데랑 옥사나 추소비티나(우즈베키스탄) 등이 화제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신화통신이 발표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지켜볼 떠오르는 중국 스타 10명’에는 여자 골프 세계 1위 인뤄닝, 바둑의 커제, 여자 테니스 세계 22위 정진원, 육상 허들 우옌이 등이 포함됐다.

역시 신화통신이 선정한 베데랑 중국 선수 10명에는 마룽(탁구), 궁리자오(육상) 등이 뽑혔다. / 이정훈 기자

**에너지 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은 한 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 UP!

BUSAN is READY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

“왜 여기서 나와?” 드라마 속 코미디언들 ‘감초’ 맹활약

김용명·송박스 등…단순 카메오 출연 넘어 긴 호흡의 정극 연기까지

무진시를 꽉 잡고 있는 일진 출신 배우 희(주민경 분). 여전히 그녀의 전화 한 통이면 후배들은 생업도 제쳐둔 채 달려 온다. 그런 배우희가 절친 봉예분(한지민)을 돋기 위해 오랜만에 ‘옥희 군단’을 불러 모았는데 동생들 사이에 웬 아저씨 한 명이 주뼛대며 서 있다. 직업은 교사, 이름은 김용명. 출산으로 몸이 성치 않은 여동생을 대신해 나왔다는 그는 꼬박꼬박 옥희를 ‘언니’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닌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묘하게 억울해 보이는 표정과 어리바리한 말투. ‘얼굴만 봐도 웃긴’ 김용명이 나서자 별것 아닌 행동도 팬스레 웃기다.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힌 코미디언들이 다양한 개성과 매력으로 ‘감초’ 역할을 특별히 해내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JTBC 드라마 ‘힙하게’에 본명 그대로 출연하는 김용명은 2004년 SBS ‘웃찾사’로 데뷔한 개그맨이다. 분량이 길지는 않지만, 매회 꾸준히 등장하며 짧은 몇 장면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김용명이 ‘옥희 군단’ 모임에 참석해 주특기를 선보이는 장면이 화제다. 교



JTBC 드라마 ‘힙하게’

편을 잡고 있어서 ‘12세용 육’을 잘한다는 김용명은 속사포로 초등학생들의 신조어를 쏟아내는데, 해당 장면의 유튜브 영상 클립 조회수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73만회를 넘어서었다.

시청자들은 “개그맨인데 연기가 자연스러워서 놀랐다”, “언니라는 대사를 김용명처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힙하게’ 제작진 측은 “김석윤 감독님 이 평소 김용명 씨의 코미디를 좋아해 먼저 출연을 제안했다”며 “김용명 씨의 평소 코미디 톤을 반영해서 드라마 속 엉뚱하고 반전 있는 캐릭터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종영을 앞둔 tvN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에는 대세 코미디 크루 송박스가 출연한다. 염지윤은 여자 주인공 솔희(김소현)의 타로 카페 근처에 위치한 샐러드 가게 사장을 연기한다. 지나치게 솔직해서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음흉한 구석 없고 남

뒤통수 칠 일 없는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다.

김원훈은 여자 꼬시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맥줏집 사장 오오백 역을, 조진세는 소심한 성격에 자신감도 부족해서 연애 경험에 없는 뺑집 사장 소보로 역을 맡았다.

3인방은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와 탄탄하게 다져진 호흡으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ENA 드라마 ‘신병’ 시즌2에도 코미디언 이수지가 출연해 웃음을 담당한다. 사단장 아들인 ‘군수자’ 박민석의 친누나이자 유격 훈련 교관으로 등장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코미디언들이 드라마에서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과거부터 종종 감독들의 브리콜을 받고 카메오(단역 출연자)로 출연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반짝 화제’를 끌어내는 것을 넘어서 더 긴 호흡의 정극 연기를 선보이는 추세다. 이처럼 연기력에 인지도 까지 갖춘 코미디언들은 여려모로 매력적 인 캐스팅 후보로 주목받는다.

/ 이영희 기자



SBS 드라마 ‘7인의 탈출’

김순옥표 자극적인 ‘매운맛’

‘7인의 탈출’ 시청률 6%로 출발

‘펜트하우스’ 시리즈를 집필한 김순옥 작가가 이번에도 자극적인 ‘매운맛’을 선보였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처음 방송된 김순옥 작가의 신작 SBS ‘7인의 탈출’ 시청률은 6.0%로 집계됐다.

첫 회 방송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선 7인의 악인이 차례대로 소개됐다.

우선 드라마 제작자 대표 금라희(황정음)는 돈과 성공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욕망의 화신이다.

자신이 버렸던 친딸 뱅다미(정라엘)를 찾으나 나서지만, 그의 목적은 모성과는 거리가 멀다. 현금 부자 방칠성(이덕화)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딸을 이용하려는 금라희는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 밖에도 방칠성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차주란(신은경), 자신의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다미에게 접근한 명주여고 아이돌 한모네(이유비), 악녀 연예계 사장 양진모(윤종훈) 등이 등장했다.

아직 본격적인 갈등은 전개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인 한모네가 학교 미술실에서 훌로 출산하는 등 별씨 자극적인 소재를 벼무쳤다.

주변 인물들의 거짓말과 욕망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뱅다미, 그리고 그를 그렇게 몰아세운 주인공 7명의 운명이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방송된 KBS 일일드라마 ‘금이야 옥이야’는 최종회 시청률 14.6%로 막을 내렸다.

싱글대디 금강산(서준영)과 입양아 옥미래(윤다영)를 중심으로 금이야 옥이야 자식을 키우며 성장해 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 김성준 기자

영탁,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

메인 테마곡 참여…24일 ‘각자도생’ 발매



함께 극 중 인물의 분위기를 살린 감각적인 프로듀싱으로 드라마의 서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OST를 탄생시켰다는 후문이다.

영탁의 믿고 듣는 보컬과 더불어 뛰어난 프로듀싱 실력까지 엿볼 수 있는 ‘각자도생’에 음악팬들의 기대감이 모아진다.

한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은 오는 1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 5분 방송된다.

영탁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 ‘각자도생’은 오는 2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 박도영 기자

가수 영탁이 ‘효심이네 각자도생’

메인 테마곡 프로듀싱을 맡았다.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 OST에 영탁이 참여해 오는 24일 ‘각자도생’을 발매한다.

‘효심이네 각자도생’(연출 김형일, 극본 조정선, 제작 아크미디어)은 타고난 착한 성품과 따뜻한 공감능력으로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던 딸 효심(유이 분)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가족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효심의 헌신과 희생에 기생했던 가족들은 각자의 주체적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해방 드라마다.

영탁은 각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드라마의 주제를 담은 메인 테

마곡 ‘각자도생’의 가장과 프로듀싱에 참여해 눈길을 모은다.

‘각자도생’은 주인공 효심이 자신의 희생만이 가족의 탈출구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풀어낸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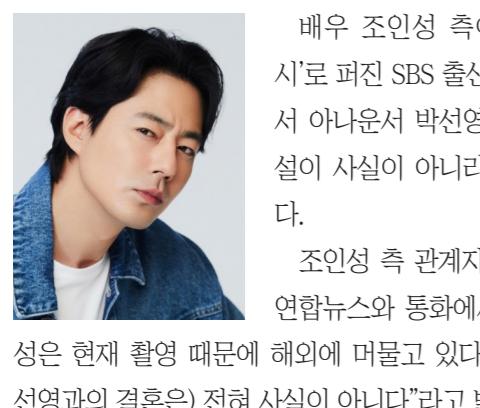
특히 영탁은 콤비 작곡가 지광민과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 | | | |
|--|------|--------|-------------------------------|
| 회장·발행인 | 송원기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
| 편집인 | 최두한 | 대표전화 |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
| 인쇄소 | 아이피디 | E-mail | unionilbo12@naver.com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난영 | 등록번호 |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
| 구독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조인성 측, ‘박선영과 결혼’ 지라시에 “사실무근”



배우 조인성 측이 ‘지라시’로 펴진 SBS 출신 프리랜서 아나운서 박선영과 결혼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인성 측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인성은 현재 촬영 때문에 해외에 머물고 있다”며 “(박선영과의 결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인성 박선영 결혼 예정’이라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조인성은 올해 개봉한 영화 ‘밀수’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에 출연했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2007년 S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20년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 정윤주 기자

CBS 라디오



YouTube Live 댓풀쇼

김현정의

뉴스쇼

월~금 아침 7:20

유튜브 100만 구독자 돌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 e-mail : ibkethics@ibk.co.kr